



[뉴스] 흔들리는 자영업 건대역 가보니 소규모 자영업은 죽을 맛 02



Economy

코스피	2301.45 (+1.29)	코스닥	783.81 (-0.89)
금리 (미국 3년)	2.07 (-0.01)	환율 (원/달러)	1119.90 (-3.90) (8일)

삼성의 통큰 결단

AI·5G·바이오·전장에 180조 투자... 4만명 채용

(3년 간)

삼성전자

4대 미래성장산업 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 기여

국내에만 130조원 투입 직간접 70만명 고용효과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와 고용계획이 담긴 180조대 투자계획을 8일 발표했다. 투자분야는 인공지능(AI)과 5세대 이동통신(5G), 바이오와 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하며, 직접 채용 4만명을 포함해 약 70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를 발생시킬 전망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신규 투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사업 육성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상생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삼성은 회사의 투자·고용 수요와 미래 성장전략, 삼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조화시켜 이번 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먼저 삼성은 향후 3년 간 투자 규모를 총 180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내에 연평균 43조원에 달하는 총 1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는 PC, 스마트폰 중심의 수요 증가에 이어 AI, 5G, 데이터센터, 전장부품 등의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팹릭 등 국내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

삼성전자 투자·고용·상생협력 계획 주요 내용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 구축

- 3년간 180조원 투자
 - 반도체 : 인공지능(AI, 5G, 데이터센터, 전장 등)의 신규 수요 대응 팹릭업리스 등 국내 생산 거점 증점 투자
 - 디스플레이 : 고부가 차별화 제품 투자 확대
 - 4차 산업혁명 중심(AI, 5G, 바이오)분야에 25조원 투자
- 3년간 4만명 직접 채용
 - 기존 계획의 2만~2만5천명에서 대폭 확대
 -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노력
 - 국내 투자 130조원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 70만명 추산
- 4대 미래 성장사업 육성
 - AI·5G 바이오 : 전장부품을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
 - 한국 AI센터 허브로 글로벌 연구 거점에 1천명 인력 확보
 - 5G 칩셋·단말·장비 등에 투자
 - 바이오시밀러(제약), CMO사업(의약품 위탁생산) 등 집중 투자로 바이오 분야 제2의 반도체 사업 육성
 -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SoC) 등 미래 자동차 전장 부품 기술 선도
- 기초과학 투자
 - 4차 산업혁명 핵심인 AI, 5G, IoT, 바이오 등 분야로 미래 기술육성사업 확대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조5천억원 지원

자료/삼성전자

혁신역량 및 노후유지 개발·공유

- 5년간 청년 1만명 소프트웨어 교육
 - 서울과 수도권, 지방 등 전국 4~5곳에 교육장을 마련해 소프트웨어 교육, 교육생에 일정한 지원
 - 성적우수자에 삼성 해외연구소 실습 기회, 직접 채용 검토
- 스타트업 지원
 - 5년간 500개 스타트업 과제 지원
 - 사내 벤처 프로그램 'C랩' 확대.200개 과제 사업화 지원
 - 사외 벤처 지원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 운영, 5년간 300개 스타트업 과제 지원
-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 현재 연간 400억원 수준인 산학협력 규모 1천억원으로 확대

상생협력 확대

- 스마트터치 지원
 - 향후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와 1천100억원 기금 조성, 2,500개 스마트공장 전환 및 판로 개척 지원
 - 비합력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방 노후 산업단지 소재 기업 및 장애인·여성 고용기업 우선 지원
 - 특허 개방, 우수기술 설명회, 구매 전시회, 온라인 소싱몰 입점 등 지원
-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확대
 - 7천억원 규모의 3차 협력사 전용 펀드 (상생펀드 및 물대지펀드) 추가 조성
 - 우수협력사 인센티브를 2차 협력사까지 확대, 인센티브 규모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증액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

연립뉴스

정이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 등 경쟁사의 대량 물량 공세에 대응해 고부가·차별화 제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추가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AI, 5G, 바이오사업 등에 약 25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고용 분야에서 삼성은 앞으로 3년간 4만 명을 직접 채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원래 채용은 3년 간 2만~2만5000명 수준인데 여기에 최대 2만명을 추가로 고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근무환경도 개선해서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삼성측은 이런 국내 130조원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 40만 명과 생산에 따른 고용 유발 30만 명 등 약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래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삶의 질 향상을 핵심 테마로 잡았다.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한 AI·5G·바이오·반도체 중심의 전장부품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AI센터를 허브로 글

로벌 연구 거점으로 삼아 1000명의 인재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물 계기로 칩셋·단말·장비 등 전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5G 인프라는 자율주행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신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만큼 핵심역량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삼성은 바이오시밀러(제약), CMO사업(의약품 위탁생산) 등에도 집중 투자해 바이오 분야를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고품위화 및 안정성 증진 등 대용량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 분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은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 1만명, 5년 간 500개 스타트업 과제 지원, 스마트 팩토리 2500개 지원,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총 4조 원으로 확대 등 종합적인 교육과 상생 지원 계획도 내놓았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은 관계사 이사회 보고를 거친 것으로,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삼성과 중소기업, 청년이 윈윈할 수 있고,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화재 진압복 입을 김정숙 여사 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화성소방서를 방문해 폭염 속 근무 환경을 체험하고 있다. /연립뉴스

설상가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되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관련법 적용 확대 권고에 소상공인들 강력 반발

131만개가 훌쩍 넘는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여부가 하반기 주요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적인 잣대를 똑같이 들이댈 경우 불법이 판을치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임금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중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더욱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진행과정에서 정부와 소상공인들의 살바싸움이 치열할 것임을 예상해 한다.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광장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최저임금 결정안 재논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협상안 재논의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립뉴스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달 말 활동을 끝내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법 적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할 것도 주문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명까지만 자

영업자나 소기업 등은 법의 울타리 밖에 있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은 최저임금 미준수, 노동권 침해, 직장 갑질 등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노동계가 법 적용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권고한 것도 이런 이유다.

한국노동연구원의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체는 131만3892개로 전체(188만2923개)의 69.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기준 월급은 5인 미만 이 138만원으로 5~9인(184만원)보다 낮았고, 10인 이상(279만원)의 절반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율은 5인 미만이 35.1%(2016년)로 전체 평균(69.6%)을 크게 밑돌았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2018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

북방경협 바람 타고 동북아 물류 새 시대

메트로경제가 오는 8월 29일(수)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지하1층)에서 동북아 물류 새시대를 주제로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을 개최합니다.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테마로 열리는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 포럼은 최근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새롭게 주목받는 동북아물류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물류의 역할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남과 북의 경제협력에 본격화하면 두 나라의 철도가 연결되고, 중국이나 러시아 철도와도 연결돼 유럽까지 철도로 이어지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나라가 됩니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철도를 비롯한 물류 인프라 협력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대통령 산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한러기업협회 등에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남북의 경제협력에 단순히 남과 북의 경제발전이 아니라 한반도가 글로벌 물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주제의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이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물류에 관심을 끌어모아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메트로경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
- 일 시 : 2018년 8월 29일(수) 09~12시(오찬 제공)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지하 1층)
- 주 최 : 메트로경제
- 문 의 : (02) 721-9826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참가신청 : 이메일 forum@metroseoul.co.kr 또는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metro